

# 다문화교육 정책 개선 방안 연구

- 이중언어교육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

함윤주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다문화연구소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학회

[www.kci.go.kr](http://www.kci.go.kr)

# 다문화교육 정책 개선 방안 연구

- 이중언어교육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

함윤주

(부산외국어대학교)

## 《목 차》

1. 들어가기
2. 다문화교육 맥락에서의 이중언어교육
  - 2.1. 이중언어교육
  - 2.2. 언어 다양성과 평등 교육
3. 이중언어교육 지원 정책의 전개
  - 3.1. 정책 추진 배경 및 목적
  - 3.2. 단계별 정책 전개 과정
4. 이중언어교육 지원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4.1. 다문화학생의 언어 사용 환경과 교육 기회의 문제
  - 4.2. 이중언어강사에 부여된 역할과 교육과정 개편
5. 맺음말

<Abstract>

**Ham Yunju.** 2020. 1. 16. **A Study on Measures to Improve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ies; With a focus on bilingual education policies.** Multi-cultural Society and Education Studies 5, 161-18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evelopmental processes of bilingual education policies in South Korea, identify their problems, and search for their improvement measures. This study found problems in the ongoing shortage of teachers and teaching materials for bilingual education and the

insufficient foundation for effective education despite the fact that bilingual education policies have been implemented for ten years as part of the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ies in the nation. The study thus conducted a critical analysis of actual bilingual education in the nation from the perspectives of representative theorists that emphasized a need for bilingual education and did research on its positive effects in the field of multicultural education.

The study recognized the value and importance of bilingual education in the context of multicultural education and explored policy directions to respect language diversity and provide equity pedagogy, thus holding its significance. It has, however, its share of limitations by remaining at the level of proposing comprehensive directions and making comprehensive proposals. Future studies will need to propose specific policy plans based on the survey and analysis of actual conditions to figure out the environment of multicultural students' language use and bilingual literacy.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ey words]** bilingual education, bilingual education policy, multicultural education, multicultural students

## 1. 들어가기

다문화교육이라는 용어를 교육 정책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2006년부터이다. 당시 급격하게 늘어난 국제결혼가정과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 탈북청소년 등이 교육 소외 계층으로 부각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정책이 수립되었다. 정책 초기에는 대상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다문화가정 자녀’ 혹은 ‘다문화가정 학생’, ‘중도입국 학생’ 등을 혼용하였으나 2011년부터 학생들의 다

양한 이주 배경과 유형을 기반으로 ‘다문화학생’이라는 포괄적인 용어로 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sup>1)</sup>

다문화교육 정책이 시행된 이래 다문화학생의 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에는 13만 명을 넘어섰다.<sup>2)</sup> 이는 전체 학생수의 2.5%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국내에서 출생된 유·초등학교의 다문화학생이 상급 학교에 진학하거나 부모의 결혼 또는 노동으로 인한 이주로 인해 새로이 진입하는 다문화학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양한 문화와 이주를 배경으로 가진 학생이 교실에 온다는 것은 그들이 가진 언어도 함께 가져온다는 것을 의미한다.<sup>3)</sup> 이주해 온 국가에서의 학교생활과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언어를 교육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다문화학생이 가진 고유의 문화와 언어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학교에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국내 교육정책에서는 다문화학생이 가진 배경과 다언어 구사 능력을 자원으로 인식하고 비교적 빠른 시기부터 이중언어교육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자 했다. 2009년 다문화교육 정책의 중점 과제 중 하나로 ‘다문화가정 학생·학부모 인재 양성’ 과제가 추진되면서 이중언어교육을 위한 교사 양성과정도 마련되는 등 이중언어교육 지원 정책이 시행되었다. 다문화학생의 증가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사

---

1) 교육부에서 정의하는 ‘다문화학생’은 부모의 국적이거나 학생의 출생지, 성장 배경에 따라 ‘국내결혼가정 자녀’와 ‘외국인가정 자녀’로 구분되며, ‘국내결혼가정 자녀’에는 ‘국내출생 자녀’와 ‘중도입국 자녀’가 포함된다. 본고에서는 교육부의 최근 용어 표기에 맞추어 ‘다문화학생’으로 일관되게 기술하였다(교육부(2019), 「2019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2) 교육부, 보도자료 “2019년 교육기본통계 결과 발표”, 작성일 2019. 8. 29.

3) Donna M. Gollnick & Philip C. Chinn(2001), *Multicultural Education in a Pluralistic Society*, PrenticeHall. (염철현 옮김(2012), 『다문화 교육개론』, 한울아카데미, 315쪽.)

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교육 지원이 확대되면서 2012년에 발표된 다문화교육 정책에서는 ‘이중언어교육 활성화’를 주요 과제 중 하나로 부각시켰으며 2015년까지 이중언어강사를 1,200명 규모로 양성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중언어교육을 담당하는 강사 한 명당 다문화학생의 수를 50명까지 축소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2015년 이후의 교육 정책에서는 이중언어교육이 주요 과제로 부각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이중언어 강사의 수도 489명에 불과하다. 이는 강사 한 명당 280명의 다문화학생을 담당해야 함을 의미한다.<sup>4)</sup> 이중언어강사 양성 계획은 2014년까지 유지되어 오다 2015부터는 보수 연수 지원으로 바뀐 상태를 그대로 담보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중언어교육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10년이 경과하였지만 다문화교육 현장의 수요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책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점을 문제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연구의 목적을 이중언어교육 정책의 전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분석해 보고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두었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이중언어교육의 개념과 다문화교육 맥락에서의 관련 이론에 대해 살펴보고 국내 초·중등학교를 중심으로 시행된 이중언어교육 지원 정책의 전개 과정을 분석하여 문제점과 한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학생 대상 이중언어교육 정책의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제언할 것이다.

---

4) 내일신문, “다문화학생 느끼는 언어 강사 태부족”. 작성일 2019. 10. 17. (<http://www.naeil.com>, 검색일 2019. 12. 19.)

## 2. 다문화교육 맥락에서의 이중언어교육

### 2.1 이중언어교육

이중언어(bilingualism, bilingual)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의 언어를 이중으로 사용하는 것’ 또는 ‘이중으로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실제로는 두 가지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으로도 해석된다.<sup>5)</sup> 예를 들어 베트남 출신의 어머니와 한국 국적의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학생이 가정에서 어머니와 대화할 때에는 베트남어를 사용하고, 학교에서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경우처럼 두 가지 이상의 언어를 상황 맥락에 맞게 달리 사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중언어 교육(bilingual education)은 ‘두 가지 이상의 언어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재로 교육하는 것’을 의미한다.<sup>6)</sup> 한편, 학교 교육 차원에서 이중언어 교육은 ‘교과 내용을 가르치는 언어로 두 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수업의 매개로 제2언어와 학생의 모어 혹은 모국어를 사용하여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sup>7)</sup> 위의 두 가지 정의가 이중언어교육의 일반적인 개념으로 널리 쓰이나 전자는 학습 결과로서의 학습자 언어 능력에 초점을 맞춘 것이며 후자는 교육 매체로 두 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방법을 강조한 것이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이중언어교육에 대한

---

5) Richards, Jack C & Schmidt, Richard W(2014), *Longman dictionary of language teaching and applied linguistics(4th)*, Taylor & Francis Group. (김창수 옮김(2016), 『언어교육·응용언어학 사전』, 글로벌컨텐츠, 60~61쪽.)

6) Kazuko Nakajima(2010), *マルチリンガル教育への招待—言語資源としての外国人・日本人年少者*, ひつじ書房. (이미숙 외 옮김(2012), 『이중 언어와 다언어의 교육』, 시사일본어사, 21쪽.)

7) Richards, Jack C & Schmidt, Richard W(2014), 앞의 책, 61쪽.

영역으로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교육(KSL, Korean as a second language)과 다문화학생의 모어 혹은 모국어 교육이 포함되어 다루어져 왔다.<sup>8)</sup> 그러나 이중언어교육의 정의에 대한 합의가 명확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다문화학생 대상 한국어교육 분야에 연구가 편중된 경향이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sup>9)</sup>

한편 다문화교육 정책상의 이중언어교육에 대한 개념은 학습 대상자와 교수자, 교육 목적 등의 측면에서 한국어교육 영역과 구분된다. 이중언어교육의 대상은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을 통합한 전체 학생이며 교수자는 이중언어강사로 명시하고 있다. 한국어교육은 다문화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며 한국어교육 능력을 갖춘 한국어교원 자격증 소지자를 교수자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이중언어교육은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한국어교육은 다문화학생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과 공교육 진입에 중점을 둔다. 이러한 교육 대상의 범주과 목적 등의 차이로 인해 국내의 이중언어교육 지원 정책에서는 한국어교육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지 않고 ‘다문화학생의 부모 또는 다문화학생의 출신국 언어에 대한 교육’으로 구분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중언어교육은 교육 대상과 목적, 방향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따라 다른 의미로 정의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정책 개념의 사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8) 응용언어학 분야에서는 제2언어(L2, second language), 학습자의 모어(L1, first language)와 같은 용어를 사용한다.

9) 장은영·이정아(2018), 국내 다문화교육 연구 동향 분석: 이중언어(교육)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4권 3호,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502~503쪽.

## 2.2 언어 다양성과 평등 교육

다문화교육의 대표적인 이론가들은 이중언어교육에 대한 정의로 ‘학교에서 이중언어 사용자인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는 교육 매개체로서 두 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교육’을 지지한다. 니에토(Nieto)는 미국 사회에서 제2언어로서의 영어 교육은 필수적인 것이지만 영어만을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교육은 학생들의 모국어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이는 이중언어교육과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영어 교육만을 위한 모국어 사용은 영어 학습 능력을 갖춘 후 더 이상 학교에서 모국어를 사용할 이유를 배제하므로 유의미한 학습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교육 형태에 대해 비판한다.<sup>10)</sup>

골닉과 친(Gollnick & Chinn)은 이중언어교육에 대해 ‘두 개의 언어 사용을 수업의 매개로 허용하는 교육 방법’이라는 정의가 전문가 간 의견 일치를 얻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중언어교육은 미국 사회에서 제한적으로 영어를 사용하는 학생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업을 성취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sup>11)</sup>

다문화교육 이론가들의 이러한 정의는 다문화교육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평등 교육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베넷(Bennett)은 평등 교육에 대해 ‘한 사회에서 소수 민족이나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계층에 속하는 학생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원리’로 정의하였다.<sup>12)</sup> 다양한 문화로 구성된 사회

---

10) Sonia, Nieto(2009), *Language, Culture, and Teaching*, Routledge. (김영순 외 옮김(2016), 『언어, 문화 그리고 비판적 다문화교육』, 북코리아, 168~170쪽.)

11) Donna M. Gollnick & Philip C. Chinn(2011), 앞의 책, 339~341쪽.

12) Bennett, Christine I.(2007), *Comprehensive Multicultural Education*, Prentice Hall.(김진호·신인순·김옥순 옮김(2009), 『다문화교육 이론과 실제』, 학지사, 23~25쪽.)

안에서 문화 다원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 접근인 다문화교육에서는 학교나 일반 사회에서 사용되는 주류 언어의 사용만을 허용하고 그 외 다양한 언어의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이나 교육 방식을 자민족 중심주의나 문화 동화주의에 기반한 것으로 인식한다.

니에토(Nieto)는 다문화학생의 언어 공동체를 무시하고 모국어 사용을 금지하는 언어 동화 교육은 평등 문제와도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다문화교육에서 다루어지는 인종, 계층, 젠더 등의 요소와 같이 언어 다양성 또한 다문화교육을 위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였다. 그는 미국 사회에서 영어가 아닌 소수 집단의 언어가 열등한 문화로 인식되거나 영어 학습을 저해하는 장애 요인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교육자들 또한 학생들의 언어 동화를 우선시하며 언어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단일 언어만을 사용하고 학습하는 학생들에게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학생과 교수자를 교육 자원으로 인식할 수 있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sup>13)</sup>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문화교육의 맥락에서는 이중언어교육이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다문화학생이 가진 문화적 배경으로서 그들이 가진 언어 다양성의 가치를 인식하고 존중해야 한다. 둘째, 제한된 언어 사용으로 차별하지 않고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측면에서 이중언어교육 지원 정책이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

13) Sonia, Nieto(2009), 앞의 책, 161~163쪽.

### 3. 이중언어교육 지원 정책의 전개

#### 3.1 정책 추진 배경 및 목적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다문화교육 관련 지원 정책은 5년 단위로 수립되는 범정부 차원의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과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매년 교육부에서 수립하여 발표하는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을 들 수 있다. 외국인정책과 다문화가족정책은 2008년부터 5년 단위로 1·2차 계획이 시행되었는데 다문화학생의 언어 교육과 관련해서는 ‘이민 배경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을 위한 중점 과제가 추진되었으며 주로 한국어교육과 공교육 진입에 초점을 둔 정책이 이루어졌다.

교육부에서는 다문화학생의 교육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부터 다문화학생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였다. 정책 초기에는 이들의 공교육 진입과 학습결손 방지를 위한 한국어 교육 및 교과 지도에 중점을 두었다. 2008년에는 당시 정부의 국정지표였던 ‘인재대국’ 정책의 영향으로 다문화학생을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두게 되었다. 이와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2009년부터는 다문화가정의 학부모와 학생을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과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고, 한국어와 출신국의 두 가지 언어를 사용하는 다문화가정의 학부모를 이중언어 강사로 양성하기 위한 사업이 실시되었다.

이중언어교육 정책과 관련된 주관 부처는 교육부 외에도 여성가족부가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도 2009년부터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국어는 물론 외국계 부모 나라의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언어영재교실 사업이 시행되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베트남어, 중국어, 몽골어 등 결혼 이민자의 출신국 언어를 중심으로 다문화가정의 미취학 아동 및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이중언어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이중언어강사

양성 과정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중언어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의 정책 사업이 유사한 목적과 형태로 중복되어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2014년부터 여성가족부의 관련 사업은 가정 내에서의 이중언어 사용 촉진과 부모의 인식 개선을 중점으로 하는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으로 개편되었으며, 교육부 사업은 다문화학생과 일반 학생을 아우르는 전체 학생 대상의 이중언어교육으로 확대되었다.<sup>14)</sup> 본고에서는 학교 차원의 다문화교육에서 이중언어교육 정책이 어떠한 양상으로 시행되고 전개되어 왔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3.2 단계별 정책 전개 과정

### 3.2.1 2009년~2011년: 다문화가정 학부모 지원·활용

이중언어교육과 관련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9년부터 2011년은 다문화가정의 학생과 학부모를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는 것을 주요 정책 과제로 삼은 단계이다. 2009년부터 한국어와 출신국의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을 갖춘 인적자원을 선발하고 교육하여 이중언어강사로 양성하고 활용하기 위한 정책 사업이 시행되었다.

다문화학생 수가 가장 많은 서울 및 경기,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이중언어강사 양성 과정이 시행되었으며 6개월에 걸친 900시간의 양성 과정을 이수한 후에는 평가를 통해 다문화교육 거점학교 및 다문화가정의 미취학 아동을 위한 유치원 등에 배치되어 활동하기 시작했다. 다음 <표 1>은 이중언어 강사 양성 초기에 배출된 강사와 학교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sup>15)</sup>

---

14)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으로 다문화정책 체질 개선”, 작성일 2016. 9. 8.

15) 교육과학기술부(2011), 「2011년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계획

<표 1 이중언어강사 양성 및 운영 확대>

2009년	2010년	201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중언어강사 양성 과정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 72명 교육</li> <li>- 경기, 40명</li> </ul> </li> <li>70개교에 강사 70명 배치·활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중언어강사 양성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경기 80명</li> </ul> </li> <li>유치원(서울 지역 30개소), 다문화 교육 거점학교 등 배치·활용(총 60개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중언어강사 양성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경기·인천 120명 (유아 중도 입국 자녀 교육 지원)</li> </ul> </li> <li>거점학교 80개교, 취학 전 예비과정 운영기관 등 배치·활용</li> </ul>

교육청에서는 서울 및 경기 지역의 교육대학에서 양성된 이중언어강사를 다문화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 방과 후 이중언어교육 프로그램을 위해 배치하였으며, 이중언어교육 외에 교과 지도, 다문화가정 학부모와 학생 상담 지원 등의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중언어강사 양성 과정의 교과 과목을 살펴보면 이중언어교육에 대한 이해나 교육 방법보다는 한국어교육과 한국 사회에 대한 지식에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다음 <표 2>는 서울교육대학교의 이중언어강사 교육 과정의 내용을 제시한 것이다.

<표 2 이중언어강사 양성 교육 과정(안)<sup>16)</sup>>

과목	1학기	2학기
교양 과목	(강의) 한국사회의 이해 한국의 가정생활과 문화 (현장체험) 한국 문화 탐방1	(강의) 한국의 정신문화와 인성교육 다문화교육의 이해 (현장 체험) 한국 문화 탐방2

(안)], 14쪽.

교직 과목	(강의) 한국 초등학교 교육의 이해 (강의, 실습)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예술교육	(강의) 아동 심리와 상담기법 -실습 포함 (강의, 실습)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수학교육
전공 과목	(강의) 다문화사회와 이중언어교육 한국 문학 작품의 이해1 한국어 문법 ICT 활용 및 자료 제작 한국어 교재론 한국어의 이해 한국어 듣기, 말하기1 한국어 읽기1 한국어 쓰기1 (실습) 수업 관찰 -서울 관내 초등학교	(강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수법 한국 문학 작품의 이해2 초등 교수 학습 방법론 한국어 어휘와 문화 매체활용 한국어교수법 -실습 포함 아동 발달의 이해 한국어 듣기, 말하기2 한국어 읽기2 한국어 쓰기2 (실습) 수업 실습 -서울 관내 초등학교

초기 단계의 정책은 이중언어교육을 위한 강사 양성 사업이 주가 되었으며 다문화교육의 기반과 지원 체계화를 위한 정책에는 이중언어교육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 3.2.2 2012년~2014년: 이중언어교육 활성화

2012년에는 급격하게 다문화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선제적 대응을 목적으로 한 다문화학생 대상 중기 계획인 ‘다문화학생 교육 선진화 방안’ 이 수립되었다. 정책 대상을 국제결혼가정의 국내 출생 자녀와 중도입국 자녀, 외국인가정 자녀로 유형을 세분화하였으며 초·

16) 정해숙·김이선·이아름(2013), 『이중언어교육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3쪽.

중등학교에 재학하는 다문화학생의 인원과 부모 국적, 거주 지역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수요에 맞는 교육 정책을 시행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이중언어교육의 활성화를 주요 과제로 추진하면서 이중언어강사를 2015까지 1,200명 정도로 양성 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이중언어강사 양성과정 운영대학을 서울 및 경기 지역에서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심화 연수 과정을 신설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2014년에는 이중언어강사의 명칭이 다문화언어강사로 변경이 되었으며 이중언어교육 외에도 다문화이해교육 등의 직무 연수가 포함되었다.<sup>17)</sup>

<표 3 이중언어교재 개발·보급 계획(안)<sup>18)</sup>>

수준	주요 내용	주요 대상	시기
초급	말하기·듣기 중심	국제결혼가정(한국 출생), 일반학생	2012
중급	읽기 중심	외국인가정 자녀	2013
고급	쓰기·문법 중심	중도입국자녀 및 외국인가정 자녀	2014

한편 이중언어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과 보급 사업에도 착수하였는데 일반학생과 다문화학생이 함께 배울 수 있는 이중언어교육 지원을 목표로 하였다. 이중언어교육의 단계를 언어 숙달도별로 나누어 주요 내용과 대상에 따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지원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중언어교육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4년부터의 정책은 ‘일반학

17) 다문화이해교육은 일반학생과 다문화학생을 포함한 전체 학생이 다름을 존중하고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학교 교육과정 등을 통해 ‘다문화에 대한 이해, 다문화 감수성 제고, 반편견 교육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며 언어 교육의 내용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교육부(2014), 「2014년 다문화교육 활성화 계획」).

18) 교육과학기술부(2012), 「다문화학생 교육 선진화 방안」, 12쪽.

생과 다문화학생이 함께 배우는' 이중언어교육을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정규 학교에서는 방과 후 수업에 전체 학생의 수업을 고려하여 일본어, 중국어 등 초급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다문화교육 거점학교에서는 정규학교에서 개설하기 힘든 외국어를 중심으로 초급부터 고급까지 다양하게 개설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중언어 캠프를 개최하여 일반 학생과 다문화학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중언어 학습의 기회를 늘리고자 했다.

현재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 이중언어 교재는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필리핀어(따갈로그어)이며 전자책의 형태로 에듀넷이나 미래에셋박현주재단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자책을 내려받아 사용할 수도 있다.



<그림 1 이중언어교재 전자책>

전자책은 서울대학교 다문화교육 연구센터와 한국의국어대학교 다문화교육원, 미래에셋대우에서 기획하고 개발한 것이다. 그러나 2015년에 개발된 종이책의 내용에 기반하여 만들어졌으며 머리말에는 ‘국제결혼 가정의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개발’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교재의 제목에도 ‘엄마 아빠와 함께 배우는’ 교재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 학령기 이전에 가정 내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기초적인 이중언어를 교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다. 이는 정규 학교에서 시행하는 일반학생과 다문화학생을 통합한 형태의 이중언어교육에 적합한 교재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기초적인 회화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교과 내용 학습이 가능한 정도의 읽기나 쓰기 기능을 다루는 교재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다.

2013년부터는 다문화학생의 이중언어 재능을 발굴하고 학습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하기 시작하였다. 2013년에는 지역·기관별로 말하기 대회 실시가 권장되었다가 2014년에는 전국 대회로 시상 규모를 확대하여 실시하였다.

이중언어교육의 활성화를 주요 과제로 내세운 2012년부터 3년 간의 정책 추진 단계에서는 이중언어강사의 수와 역할 범위를 확대하고 교재 개발에 착수하는 등 교육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교육에서의 이중언어교육 대상과 목적에 맞는 교재는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또한 한국어교육에 편중되었던 이중언어강사 교육과정의 개편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다문화이해교육의 책무도 부담해야 하는 형태로 강사 역할이 확대되었다.

### 3.2.3 2015년~2019년: 진로교육 강화를 위한 외국어교육

2015년 이후부터는 기존에 시행된 이중언어강사 양성과정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반적인 점검과 평가가 계획되었으며 보수 연수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더 이상 이중언어강사의 양성 규모 확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다문화교육 정책의 중점 과제로 이중언어교육이 부각되지 않았으며 ‘재능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 강화’의 하위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이 통합된 형태로 진행되는 이중언어교육 지원 계획이 이전 단계와 같이 유지되었으며 방과 후 수업이나 창의

적 체험활동 등을 활용한 이중언어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또한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도 2019년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인 규모로 계속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중언어교육의 기반을 체계화하기 위한 노력이나 다문화학생의 증가에 상응하는 강사 확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기존에 시행된 프로그램을 담보하는 상태이다.

#### 4. 이중언어교육 지원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앞 장에서는 이중언어교육 지원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2009년부터 현재까지의 교육 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초기에는 다문화학생과 학부모가 가진 이중언어 능력을 향상시켜 미래의 인적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이중언어강사로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둔 사업이 시행되었다. 이중언어교육의 활성화를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한 2012년부터는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이 함께하는 통합 형태의 이중언어교육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다.

이는 앞서 다문화교육의 맥락에서 제시한 언어 다양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일반학생과 함께하는 통합 학급 형태의 이중언어교육을 통해 다문화학생이 배경으로 가진 문화로서 다른 언어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문화학생을 위한 평등한 교육 기회의 제공 측면에서 본다면 학습자의 모어 능력을 유지하고 한국어 능력과 균형 있게 배양할 수 있는 교육을 위한 지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측면의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4.1 다문화학생의 언어 사용 환경과 교육 기회의 문제

이중언어교육을 위해서는 학습의 기초가 되는 모어(L1)의 숙달도가 어떠한지를 파악하고 이에 기반한 교육 내용을 구축해야 한다.<sup>19)</sup> 다문화학생의 언어 사용 환경과 학교 진입 시기, 모어 숙달도는 개인별로 다양하며 개별 상황과 수준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 차원에서는 다문화학생의 이중언어 사용 능력이나 환경 등 실태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일반학생과 통합한 전체 학생 대상의 방과 후 기초 외국어 교육만을 시행하고 있다.

이중언어 사용 환경에 대해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자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가정 내에서의 모국어 사용과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게 나타났다.<sup>20)</sup> 가정 내에서 결혼이민자의 모국어 사용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결혼이민자의 응답은 41.1%로 긍정적인 응답 35.5%보다 많았다. 자녀에게 모국어를 교육한다는 가정도 2015년에 비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한편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외국 출신 부모의 모어에 대한 환경을 조사한 결과, 외국 출신 부모의 모어를 사용하도록 격려하지 않은 환경에 놓여 있다는 응답이 52.3%로 높게 나왔으며 모어에 대한 태도도 2012년 이후 점차 부정적인 양상으로 변화되는 현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에서의 이중언어 사용을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모어 사용과 이중언어 문식력 향상을 위한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학교에서의 체계적인 이중언어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

19) Kazuko Nakajima(2010), 앞의 책, 22~24쪽.

20) 최윤정 · 김이선 · 선보영 · 동제연 · 정해숙 · 양계민 · 이은아 · 황정미(2019),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55~161쪽.

또한 이와 같은 양상은 학교에서 교육매체로 사용되는 언어로 한국어만이 단일하게 사용되는 환경이라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학교의 공식언어로 영어만을 인정해 왔던 미국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제한된 언어 능력을 가진 학생이 일반학생과 평등하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1968년부터 이중언어로 교육 받을 수 있는 관련법과 제도를 마련한 바 있다.<sup>21)</sup>

향후 정책은 다문화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가는 다문화학생이 그들이 배경으로 가진 문화와 언어의 가치를 인정받고 일반학생과 같이 평등하게 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문화학생의 한국어 능력은 물론 모어 문식력과 모어 사용에 대한 태도 및 환경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면밀하게 파악된 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학생이 한국어 능력과 모어 능력을 균형 있게 배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세분화된 교육 지원이 요구된다. 향후에는 일반학생과 다문화학생을 통합한 형태의 전체 학생 대상 초급 외국어교육 외에도 다문화학생의 모어 및 교과 학습 능력의 향상을 위한 이중언어교육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아가 할 것이다.

## 4.2 이중언어강사에 부여된 역할과 교육과정 개편

2009년부터 2011년에 걸쳐 이중언어강사의 양성 규모가 확대되고 다문화학생의 교과 지도와 다문화가정 학부모 및 학생과의 상담, 출신국 언어지도 등 다양한 역할 수행이 기대되었다. 2014년부터는 다문화언어강사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다문화이해교육의 역할도 부여되었다. 그러나 실제 활동하고 있는 이중언어강사들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문화이해교육을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중

---

21) Donna M. Gollnick & Philip C. Chinn(2011), 앞의 책, 339~341쪽.

언어교육보다는 돌봄교실 업무, 교사 및 학부모 대상 외국어교육, 특기적성 교육 및 상담 등 다양한 업무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22)</sup>

또한 3장에서 살펴본 이중언어강사 양성 과정의 교육 내용이 한국어교육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언어교육에 대한 이해와 교육 방법 등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정안이나 재교육 계획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골닉과 친(Gollnick&Chinn)은 효과적인 이중언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자격을 갖춘 이중언어교육자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중시한다. 이중언어 사용자라고 해서 반드시 이중언어교육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중언어교육을 위한 충분한 준비와 훈련을 통해 전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한편으로 이중언어교육자로서 학생들이 가진 언어 다양성을 존중하고 고유의 문화적·언어적 배경의 가치를 인식하는 것을 책임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바 있다.<sup>23)</sup>

다문화학생의 지속적인 증가세로 봤을 때 이중언어강사의 양성과 확대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순한 양적 확대와 무분별한 배치만 이루어지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한국어교육에 편중된 기존 교육과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문화학생의 의사소통 능력과 교과 학습 능력을 균형 있게 발달시킬 수 있도록 모국어 문식력 향상과 관련된 교육을 추가·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강사 활용 역시 과도하고 혼잡하게 부여된 역할을 세분화하여 이중언어교육 영역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야 한다. 교육 내용과 역할 수행 면에서 이중언어교육과 확연하게 구분되는 다문화이해교육 영역, 다문화가정 학부모와 학생 상담 영역, 돌봄교실 영역 등은 기존에 활동한 강사들의 경력과 교

---

22) 정해숙·김이선·이아름(2013), 앞의 논문, 30쪽.

23) Donna M. Gollnick & Philip C. Chinn(2011), 앞의 책, 343~352쪽.

육 경험을 기반으로 개편하여 현장 수요에 맞는 적절한 인력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5. 맺음말

본고에서는 국내 다문화교육 정책에서 이중언어교육과 관련된 지원 정책이 2009년부터 10년 동안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중언어교육을 수행할 강사와 교재가 부족하며 효과적으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이 충분히 구축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인식하였다. 특히 다문화교육 분야에서 이중언어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연구한 이론가들의 관점을 바탕으로 국내의 이중언어교육 현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국내에서는 다문화교육 정책의 시행 초기부터 이중언어 사용자를 인적 자원으로 인식하고 다문화가정의 학생과 학부모를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한국어만을 공식언어로 사용하는 국내의 환경에서 한국어교육 뿐만 아니라 이중언어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초기에 부각시키고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학부모인 이주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공교육 현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중언어강사 양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과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정책이 시행되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정책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중언어교육 정책의 시행에 있어 다문화학생의 언어 사용을 고려하지 않은 교육프로그램과 교육 기회 불평등, 이중언어강사의 혼잡한 역할 부여를 주요 문제점으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내 학교에 진입한 다문화학생의 언어 사용 능력이나 환

경에 대한 조사와 구체적인 진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중언어교육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의 개발과 이중언어강사에게 부여된 혼잡한 역할을 세부적으로 개편하고 전문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고에서는 효율적인 이중언어교육을 위한 방안 제시를 위해 지금까지 시행된 국내의 이중언어교육 정책을 분석하고 문제에 대한 해결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교육 내용이나 방법에 대한 제안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포괄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는 점이 한계로 남는다. 이에 이중언어교육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개편안과 교육 프로그램의 설계를 후속 연구 과제로 남기하고자 한다. 아울러 향후 다문화학생의 이중언어 사용 능력과 교육 환경에 관련된 실태조사를 비롯하여 다문화학생 및 학부모와의 면담을 바탕으로 한 이중언어교육 경험 사례 등 다각적인 연구를 토대로 한 실질적인 정책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09),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을 위한 시·도교육청 맞춤형 사업 지원계획」.
- 교육과학기술부(2010), 「2010년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계획」.
- 교육과학기술부(2011), 「2011년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계획(안)」.
- 교육과학기술부(2012), 「다문화학생 교육 선진화 방안」.
- 교육과학기술부(2013), 「2013년도 다문화학생 교육지원계획」.
- 교육부(2014), 「2014년 다문화교육 활성화 계획」.
- 교육부(2015), 「2015년 다문화교육 활성화 계획」.
- 교육부(2016), 「2016년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

- 교육부(2017), 「2017년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
- 교육부(2018), 「2018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 교육부(2019), 「2019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 교육부(2019), 「보도자료: 2019년 교육기본통계 결과 발표」.
- 교육부(2019), 「보도자료: 두 개의 언어로 말하고, 세계의 인재로 자란다」.
- 교육인적자원부(2006),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
- 교육인적자원부(2007), 「2007년도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계획」.
- 김영순(2017), 『다문화교육의 이론과 이론가들』, 북코리아.
- 김유연(2018), 한국과 호주의 이중언어 교육정책 비교, -발전과정 및 현황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73호, 이중언어학회, 29~63쪽.
- 여성가족부(2016), 「보도자료: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으로 다문화정책 체질 개선」.
- 여성가족부(2018),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안」.
- 외국인정책위원회(2018),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 장은영·이정아(2018), 국내 다문화교육 연구 동향 분석: 이중언어(교육)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4권 3호,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501~521쪽.
- 정혜수(2015), 한국의 이중언어교육 정책에 관한 비교사례 연구 -프랑스 및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정책학과 박사학위논문.
- 정혜숙·김이선·이아름(2013), 『이중언어교육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황미혜(2016), 대만의 이중언어프로그램 정책: 다문화가정을 중심으로,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INK) 제22차 학술대회 발표집.
- 황진영(2012), 한국 다문화 사회의 이중언어 교육 연구,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어교육학협동과정 박사학위논문.

- 최윤정 · 김이선 · 선보영 · 동제연 · 정해숙 · 양계민 · 이은아 · 황정미  
(2019),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한국여성  
정책연구원.
- Bennett, Christine I.(2007), *Comprehensive Multicultural  
Education*, Prentice Hall.(김진호, 신인순, 김옥순 옮김  
(2009), 『다문화교육 이론과 실제』, 학지사.)
- Colin Baker(2009), *Foundations of Bilingual Education and  
Bilingualism*, MultilingualMatters, (연준흠, 김주은 옮김(2011),  
『이중언어의 기초와 교육』, 학지사.)
- Donna M. Gollnick & Philip C. Chinn(2001), *Multicultural  
Education in a Pluralistic Society*, PrenticeHall. (엄철현  
옮김(2012), 『다문화 교육개론』, 한울아카데미.)
- Kazuko Nakajima(2010), *マルチリンガル教育への招待－言語資源とし  
ての外国人・日本人年少者*, ひつじ書房.(이미숙 외 옮김  
(2012), 『이중 언어와 다언어의 교육』, 시사일본어사.)
- Richards, Jack C & Schmidt, Richard W(2014), *Longman dictionary  
of language teaching and applied linguistics(4th)*, Taylor  
& Francis Group4. (김창수 옮김(2016), 『언어교육·응용언  
어학 사전』, 글로벌콘텐츠.)
- Sonia, Nieto(2009), *Language, Culture, and Teaching*, Routledge.  
(김영순 외 옮김(2016), 『언어, 문화 그리고 비판적 다문화  
교육』, 북코리아.)

<웹사이트>

교육부 <https://www.moe.go.kr>

내일신문 <https://www.naeil.com>

미래에셋박현주재단 <https://oundation.miraeasset.com>

법무부 <https://www.moj.go.kr>

여성가족부 <https://www.mogef.go.kr>

에듀넷 <https://www.edunet.net>

중앙다문화교육센터 <https://www.edu4mc.or.kr>

#### 필자 소개

성 명 : 함윤주

소 속 : 부산외국어대학교

주 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 485번길 65 [우편번호]46234

전화번호 : 010-8318-2105

전자우편 : xianlaoshi@naver.com

투고일: 2020. 1. 22 / 심사일: 2020. 2. 14 / 심사완료일: 2020. 2. 21